

주간말씀묵상

도움의 손길로 여기까지
(에스라 8:31)



■ 들어가는 말

1. 인생살이에는 누구나 환난(쓴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다 보고 듣고 마음아파 했던 금년 전반기(특별히 7, 8월)에 있었던 갖가지 환난들을 잘 알 것입니다. 예) 교통사고, 각종재난 사고, 힘들고 어려운 일 등. 이 모든 사건들은 우리가 예견할 수 없었던 뜻밖의 일들이며, 속수무책으로 당한 슬픈 현실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인생을 예견할 수 없고, 한치 앞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불행하다고 해서 끝까지 불행한 것도 아니며, 지금의 행복이 영원하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결코 우리 인생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사41: 10). 당신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건 사고, 환난이 많은 이 세상을 이겨 갈 수 있습니다.

2.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며 설교자는 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까?

제 목 - “도움의 손길로 여기까지”

이 유 - 우리가 사는 세상은 뜻밖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세상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로운 약속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욥 5:19).”

※ 오늘 본문 말씀은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에스라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 다음 성경을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 7 :9, 8 : 31)

(스 7:9)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스8:31) "첫째 달 십이 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1. 이상의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9, 3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을 입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위험한 길을 무사히 마쳤다는 은혜로운(축복의) 기록입니다.

2.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여행길에 어떤 위험이 있었습니까?(9, 31절)

- 1) 먼길의 위험이 있었다(9). → 정월 초하루에 떠나서 오월 초하루에 도착(4개월이나 걸리는 길)
- 2) 길가에 대적과 매복자가 많은 위험이 있었습니다.(31하) → 팔레스틴 지역을 여행하는 길에는 여러 소수민족들이 항상 약탈을 일삼고 있었음을 말씀하는 것이다.

※ 그런데 에스라가 이와 같은 위험한 길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다는 하나님 말씀 기록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서 무사할 수 있었나요?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의 복음입니다.

■ 다음 성경을 또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8 : 21 - 23)

(스 8:21) “그 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스 8:22)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을이라.”

(스 8:23)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은혜하심을 입았나니라”

1. 이 말씀은 에스라의 무사 귀환 원인을 말씀하는 기록입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21절)

여행에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일행과 자녀와 소유를 위하여, 금식으로, 간구로 기도했다. 하나님은 에스라의 이와 같은 간구에 응답하였다(23). 그러므로 경호원 하나 없이 위험한 길, 환난 많은 길을 무사히 통과 했다.

2. 하나님은 이상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려 하시는 걸까요?

에스라가 하나님 사립담께 '믿음으로' 갈 하나님 말씀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마나면 길, 대적과 매복자가 숨어있는 길 언제 어떻게 사건이 일어날 지 예견할 수 없는 위험한 길을 믿음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 오늘 성경은 그 믿음(말씀)을 하나님 앞에 금식, 간구, 기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훈: 기도의 가치, 능력,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유명한 사도바울은 기도를 자신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딤후2:1).

3. 당신의 신앙(믿음)생활은 지금까지 어떠했습니까? 앞으로 어떠해야 합니까?

이 험한 인생길, 예측할 수 없는 인생길을 갈 때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는 믿음의 표현(행동)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가 예루살렘 귀환 길에 소수민족들의 약탈자가 있으므로 왕께 군대를 요구할 수 있었어도 요구하지를 않고(22하),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일행과 자녀와 소유를 위하여 간구, 기도함으로써, 멀고 먼 길, 위험한 길을 출발하였고, 결국 하나님은 에스라의 믿음에 당신의 손을 펼쳐서 에스라의 일행과 소유를 무사히 도착시키셨습니다.

※ 오늘 우리 삼일의 성도들이 마음속에 반드시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4.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핵심적으로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길(나그네, 행인/ 뱀전2: 11)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유난히도 무덤덤한 여름이 지나가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의 앞날과 열매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부근에서 절망적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박한 상황에서 모세는 위를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기도의 위대함'을 체험하게 됩니다(출애굽기 14:10-31).

이처럼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켜,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과 뚫고 나갈 길을 허락하시는 축복의 통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 그래서 우리에게도 금년 하반기에 에스라와 같은 신앙적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게 하십시오.

■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오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룻 1:21).”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 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룻1:20).” 이 말씀은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가족과 함께 삶의 풍요를 찾아 모압으로 떠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모든 것을 잃고 인생의 쓴맛(실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문제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언제 올지 예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상책은 힘 있는 분의 도움의 손길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창조, 구원, 능력, 축복, 보호의 손입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손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인생(여행)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은 예측할 수 없는 매우 불안한 길입니다. 여기에 힘 있는 사람의 보호도 좋지만 하나님의 보호의 손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귀한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